



남원시립국악단이 아랍 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쳤다.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는 우리 국악

남원시립국악단, UAE '코리아 페스티벌' 초청공연

남원시립국악단의 공연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아랍 에미리트, 중국, 일본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아랍 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 전북의 날'에 초청받아 현지 시각으로 2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아랍 에미리트 국립극장에서 공연하고,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자이드 대학교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왕실의 변영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무용 '태평성대'와 관현악과 신명나는 소고춤이 함께 어우러진 '소고춤'을 위한 축제, 독도의 아름다움과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가요 '홀로이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국의 맛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국 장쑤성 난징시 신화일보 사옥에서 열린 '한스타일 박람회'에 초청받아 조선시대 선비들이 마음을 닦으면 연주했던 거문고와, 판소리 춘향가 중 과거장 대목 등 전통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열린 '한스타일 박람회'에 초청받아 9월 3일과 4일 오후 2시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현립음악당에서 메나리 삼중주,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무용 한량무, 신민요 신사철가 등 깊이 있는 국악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단가 추억, 민요 흥타령, 기화합주

시나위로 구성된 공연 해원(解怨)은 우리나라의 소박하고 은근한 국악의 맛을 살려 깊은 울려가는 세월의 야속함, 인생무상, 먼져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 등 깊은 슬픔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립국악단은 1921년 민간단체로 출발해 1983년 시립으로 공립화되었으며 활발한 해외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사쓰마 도자기 축제와 1999년 결연을 맺어 격년으로 초청공연을 펼쳐 재일교포 및 일본 현지인들에게 우리 국악의 맛을 알리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북한 평양에서 최초로 창극 '춘향전'을 공연해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 세계 곳곳에 우리 국악의 맛을 알리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깊어가는 가을,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

'영호남연극제' 31일까지 익산시 열려

익산시는 제19회 영호남연극제가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익산 아르케 소극장과 소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연극제는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와 (사)한국연극협회 익산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한다.

'도시가 공연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25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 아르케에서 광주 극단

사람사이의 연극 우주인, 28일 오후 4시 소극장 아르케에서 전주 창작극회의 연극 늑은부부 이야기, 30일 오후 7시 30분 소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경북 (사)한국연극협회 경북지회의 연극 춘야춘야 육단춘야, 31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 아르케에서 경남 극단 상상창꼬의 연극 타이피스트가 무대에 올라 총 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예술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 지역이 화합을 이루고 연극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 간의 교류

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연극제는 특히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 깊어가는 가을날 시민들에게 각 지역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에서 열리는 이번 제19회 영호남연극제가 영호남 연극인들의 화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극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새롭고 신선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부안 행안면 문인화반 '전국은고을미술대전' 휩쓸어

특선 지순금씨 등 5명 입상

행안면 주민자치센터(위원장 김홍우)는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에서 주최한 제14회 전국은고을미술대전에 참가하여 지난 24일 전북예술회관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국은고을미술대전은 500여점이 출품된 가운데 한국화에 서예 등 총 10개 분야에서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행안면주민자치센터 문인화반은 특선(지순금 명제:목죽), 입선(오세용 명제:인연(因緣), 김영주 명제:빛방울, 문형란 명제:맑은향기, 김양석 명제:묵란)등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안면주민자치센터 문인화반 정미숙 강사는 "문인화반 수강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가지고 창의적이며 심혈을 기울여 작품 출품을 하였으며, 앞으로 붓으로 빛어내는 색의 아름다움을 공유함으로써 문인화의 전변 확대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수제천보존회가 25일 연지아트홀에서 국제민족음악교류제 및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민족음악의 우수성 널리 알릴 것"

수제천보존회, 국제민족음악교류제·정기연주회 가져

수제천보존회(회장 이영자)가 25일 연지아트홀에서 국제민족음악교류제 및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회는 이금섭 예술감독의 지휘로 수제천연주단의 '수제천'으로 무대를 연 후 키르키즈스탄 민속양상블 '아렘'의 민속음악 연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후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영자 회장은 "이번 공연은 키르키즈스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민속양상블 '아렘'을 초청하여 민족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연이었으며, 국내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유진박의 바이올린 연주와 수제천의 협연을 통해 수제천이 시민에게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수제천보존회는 1996년 수제천 연주교실을 시작으로 올해로 23년째이다. 현재 정기연주회 및 국제민족음악교류제, 찾아가는 수제천연주교실 운영과 서울, 경남 마산, 경북 성주, 전남 강진, 영암 등 전국 각지 초청공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공연, 동학기념제, 정읍사문화제 초청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